

**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 사건과 관련하여 협회 회원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.**

**제안 배경**

‘서연이 시리즈’를 쓴 동화작가 한예찬씨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(27건)로 기소되어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한씨는 자신이 인권침해를 한 적이 없고, 아동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고 항변,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합니다. 본 사건으로 인해 출판사는 책을 회수 조치하고, 온라인 서점에서는 도서를 모두 내렸으며 도서관에서는 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**제안합니다.**

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전국의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새로운 책 문화,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. 협회는 좋은 책이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실천하고자 합니다.

협회는 본 사안에 대하여 어린이서비스위원회와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며, 작은도서관의 주이용자인 어린이를 생각할 때 이 사건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에 ‘도서관에 어떤 자료를 갖추고 서비스 할 것인가?’란 물음 아래 협회 회원 도서관에 아래와 같이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합니다.

1. 본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(관련 기사, 한예찬 작품)와 사건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을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.
2. 어린이 대상의 장서를 읽고 평가해 봅니다. (할 수 있는 만큼 분야를 정해서 진행합니다.)
3. 평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료 처리 방법(열람 제한, 폐기)을 결정합니다.
4. 본 활동을 통해 시행 가능한 1~2가지 도서관자료선정지침(방안)을 정리합니다.
5. 장서평가에 대한 결과와 도서관자료선정지침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.
6. 위 활동자료를 협회와 공유합니다.

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앞으로도 출판, 독서, 도서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,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도서관과 함께 활동해 나가겠습니다.

2021. 3. 4.

**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**